

## 제도개선 때 '사전 예고제' 도입

-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공단은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 등 국민생활과 업계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제도 개선이나 내부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외부 의견수렴절차 없이 내부절차만으로 진행하였으나 국민생활 및 외부이해관계와 밀접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하도급 계약관련 규정 등 10여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제·개정 취지, 제·개정안 신·구조대내비표,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내규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면 국민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내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법령 및 다른 내규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이나 인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규의 개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규 개선사항 권고제도를 도입하여 내규체계를 상시 관리함으로써 내규의 규범력 및 적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0억원 상당 토지 소유권 소송 승소

- KTX 광명역사 건설부지 관련 경기도·광명시 상대 소송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 재산관리운영처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부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96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시 역사 부지에 도로(오리로)가 저촉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대체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양여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소유 토지(6,884㎡)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상양여를 거부함에 따라 작년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단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당한 권리 확보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이 침해될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본부 이종석 기자)



## 올해 하반기 6개 철도건설사업 개통

- 분당선·경의선 등 3개 노선 연장... 중앙선 등 간선철도 3개 -

공단은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도심 진·출입과 환승편리를 위한 분당선 및 경의선 연장 등 수도권 광역철도 3개 사업과 전국 주요도시를 보다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한 중앙선, 경전선, 경원선 등 간선철도 3개 사업을 포함한 총 6개의 철도건설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수도권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건설하는 광역철도사업 중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6.8km)은 오는 10월 6일에, 오리~수원 북선전철 중 기흥~방죽 구간(7.7km)은 12월 1일에, 경의선 공덕~DMC 구간(6.1km)은 12월 15일에 개통 예정할 예정이다. 3개 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도심 진·출입과 수도권 내 환승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0월 6일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이 개통되면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지역과 수도권 중심부 및 북부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기존 환승에 따른 불편과 혼잡이 해소되어 1일 약 12만명을 넘는 철도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12월 1일 분당선 기흥~방죽 구간의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의 용인, 기흥 및 수원 영통 주민들의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2월 15일 경의선 DMC~공덕 구간이 개통되면 '09년 우선 개통한 문산~파주~일산~DMC 구간 북선전철이 도심까지 연장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도시를 직접 연결하게 되어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간선철도사업 중 중앙선 용문~원주 구간(28km)은 오는 9월 25일에,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5.6km)은 11월 20일에, 경전선 마산~진주 구간(53.5km)은 12월 5일에 개통 예정이며, 3개 사업이 개통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중앙선 용문~원주 북선전철은 '09년 개통한 청량리~용문 북선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요의 대폭 증가와 함께 생활권역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원주이남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시간 단축 등 많은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경원선 신탄리~철원간 5.6km 단선 개통으로 철원지역 이용객에게 수송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통 예정인 경전선 마산~진주 북선전철 개통은 '10년 개통한 삼랑진~마산 북선전철을 진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경남 서부지역에 KTX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6개 사업을 차질없이 개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통구간	개통예정일	비고
중앙선 용문~원주 북선전철 (L=27.98km)	9.25(화)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북선전철사업 (L=6.8km)	10. 6(토)	• 당초 10월말 → 10. 6 개통, 25일 단축 • 개통식: 10. 5(금) 예정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L=5.6km)	11.20(화)	• 당초 12.15 → 11.20 개통, 25일 단축 • 개통식: 11.20(화) 예정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중 기흥~방죽구간 북선전철 (L=7.7km)	12. 1(토)	• 당초 12월말 → 12. 1 개통, 1개월 단축 • 개통식: 11.30(금) 예정
경전선 삼랑진~진주 북선전철 (L=53.5km)	12. 5(일)	• 당초 12.15 → 12. 5 개통, 10일 단축 • 개통식: 12. 5(수) 예정
경의선 공덕~문산중 공덕~DMC구간 북선전철 (L=6.1km)	12.15(토)	• 당초 12월말 → 12.15 개통, 15일 단축 • 개통식: 12.14(금) 예정

## 고속철도 인프라기술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참석

(International Seminar for High Speed Railroad Infrastructure Technology)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8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최하는 고속철도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7명의 세계 각국 철도전문가가 모여 「미래 최첨단 고속철도 인프라기술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공단은 「한국의 열차속도 향상 계획」과 「철도망 구축계획(고속철도 및 고속화 노선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1단계부터 현재 건설중인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 기술발달」에 대해

여 언급하며 공단의 명성을 높이고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본부 김경민 기자)



##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설공사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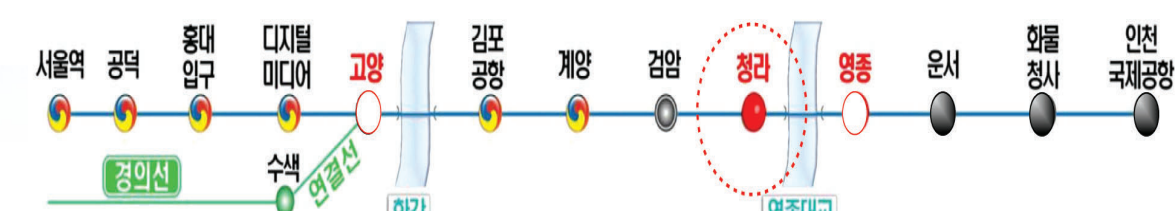
- 낙찰자 10월 선정... 내년 12월 완공 -

공단은 지난 8월 31일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노반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청라역 신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에 위치하게 될 청라역사는 인천 청라지구 입주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공단이 역을 신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청라역이 개통되면 인천 청라지구 입주주민들이 서울 및 도심으로 40분내 진입이 가능해져 이동편의와 접근성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에 발주하는 청라역 노반공사의 낙찰자를 오는 10월 중에 선정·착공하고, 순차적으로 역사 및 전기분야 공사도 시행하여 '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완료 후 열차는 1일 130회 운행될 예정이다.



## 호남고속철도 전차선로 신설공사 본격 추진

- 이달 말 시공사 선정, 2014년 6월 완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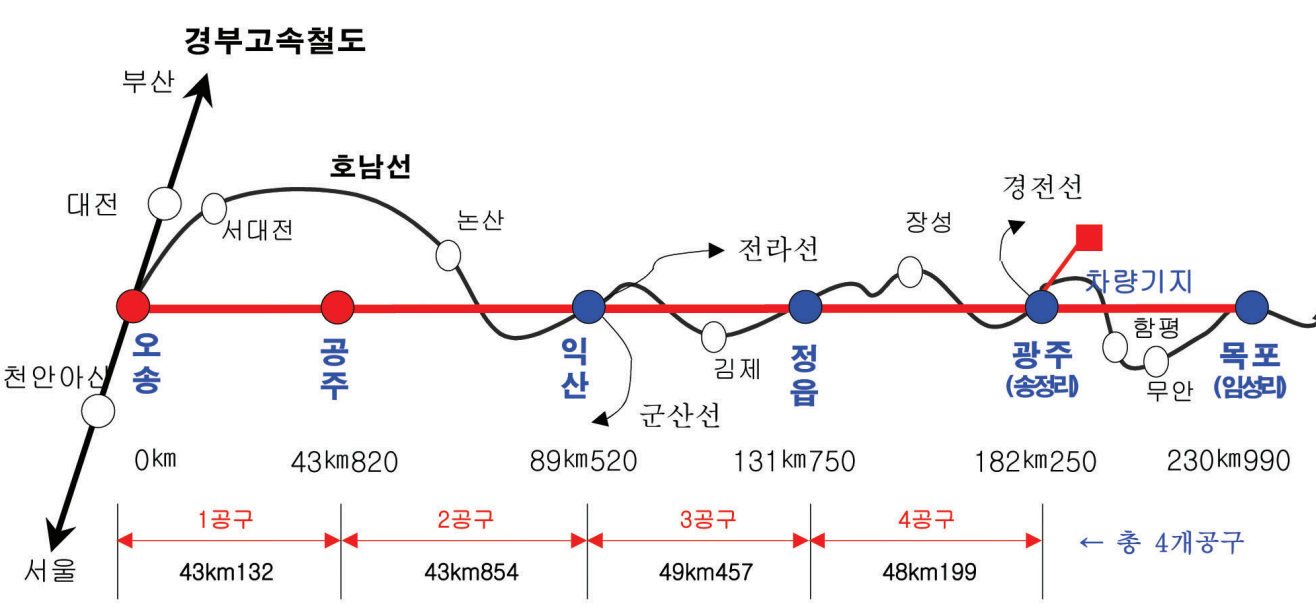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중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차선로 신설공사는 고속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25kV)를 공급하는 전차선, 급전선과 각종 지지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총 공사비 1,120억원으로 오송~광주, 광주~익산, 익산~정읍, 정읍~광주의 4개 공구로 나누어 지난 8월 29일 발주했다.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반드시 지역 업체를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과 특정업체 편중 낙찰을 막기 위한 「1社 1공구 낙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시공사를 9월 말에 선정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정에 맞추어 '14년 6월까지 완료해 같은 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되는 전차선 4개 공구 중 1공구(오송~광주)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경험 등이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직접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약 31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호남고속철도 통신선로 신설공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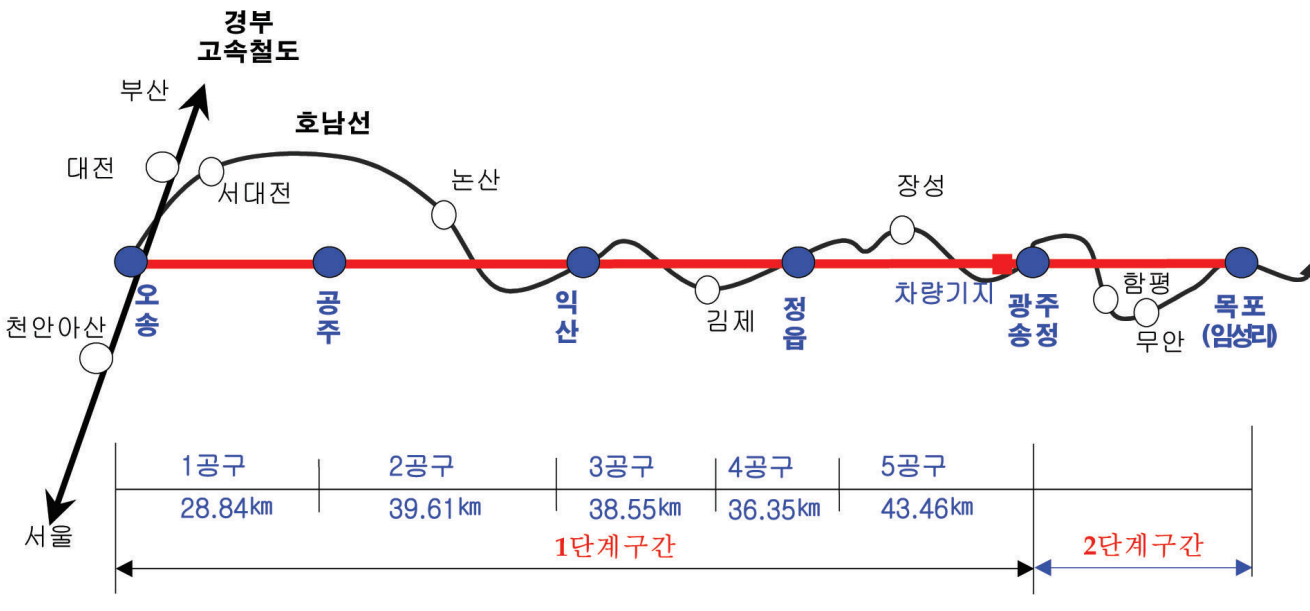
- 총 공사비 312억원 규모, 5개 공구 분리발주 -

공단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의 통신선로 신설공사를 발주, 오는 10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11월부터 본격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통신선로 신설공사는 총 공사비 312억원 규모의 공사로 고속철도 운용에 안정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제공을 위한 광케이블과 통신관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오송~광주, 광주~익산, 익산~김제, 김제~정읍, 정읍~광주의 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한다.

공단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및 「1社 1공구 낙찰제」 등을 적용하여 특정회사 편중 낙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통신선로 신설공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14년도 말 호남고속철도가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당선 북선전철 왕십리~선릉간 10월 6일 개통

- 종합시험운행 시작... 강남북 이동시간 대폭 단축 -

공단은 지난 8월 21일 분당선 북선전철사업 중 왕십리~선릉(6.8km)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3일부터 28일까지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10월 6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약 1개월에 걸친 종합시험운행기간 중 총 50회 시설물 검증열차를 투입, 최고속도 110km/h까지 운행하면서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철도 차량의 운행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왕십리~선릉 구간에는 성수, 청담, 강남구청, 삼릉 등 4개의 역이 신설되고, 출퇴근 시간대는 최소 3~4분 간격으로, 평상 시간대에는 8분 간격으로 1일 편도 340회가 운행되며, 새로 개통되는 구간의 이동 소요시간은 10분이 될 예정이다.

왕십리~선릉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선릉~기흥간 운행중인 분당선 전동차가 왕십리역까지 연장 운행되며, 2호선 왕십리~선릉간은 24분, 분당선 왕십리~선릉간은 10분으로 분당선 이용시 14분이 단축되는 등 강남과 강북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경원선 및 서울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구청역에서 7호선으로, 삼릉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여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도심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 지고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시민들에게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수역에서 청담역 사이에 위치한 한강저터널(846m)은 실드장비의 앞부분 커터가 회전에 굴착한 뒤 미리 제작한 터널 벽조각을 바로 조립해 굴착과 동시에 터널구조물을 완공하는 '실드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이라는 최첨단 기계화공법이 국내에서 교통터널로는 최초로 사용되었다.

또 상행선과 하행선이 분리된 단선병렬로 사용하여 터널 중간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하행선을 연결하는 2개소의 대피로를 설치하였다.

